

GGM, 2024 전기차 양산체제 분주...제2의 도약 준비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 나서 2교대 실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난해 캐스퍼 5만대 목표 달성 3대 분야 ISO 인증·품질경영 대상 '자동차 전문 생산기업' 토대 마련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나서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새해 첫 목표를 '전기차 양산체제 구축'으로 잡았다.

2일 GGM에 따르면 2021년 9월 15일 첫 생산차 '캐스퍼'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 지난해 5만대 생산 목표를 달성하며 광주형 일자리 연착륙을 알렸다.

신생 자동차 회사인 GGM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또 반도체 수급난 등 부품 공급 자질, 경차 시장 10만대라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한계 속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흥행에 힘입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GGM은 ▲5만대 생산 목표 달성 ▲품질 안전 환경 3대 분야 ISO 인증 획득 ▲품질경영 대상 수상 ▲은탑산업훈장 수여 ▲상생과 소통의 문화 기반 조성 등 5가지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회사 설립 3년, 본격 생산 1년 만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5만대 생산 달성은 가장 돋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GGM측은 모든 임직원이 핵심 가치인 상생을 실천, '캐스퍼'가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명실상부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제2의 도약'을 위해 전기차 양산체제 구축에 돌입한다. 양산 과정, 조립 완성차 모습. 아래 사진은 공장 전경.



양산 과정, 조립 완성차 모습. 아래 사진은 공장 전경. <GGM 제공>



또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품질과 안전, 환경 3대 분야에서 모두 인증을 획득한 것과 2022 품질경영 대상에 수상한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이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인증 기관에서 GGM을 '최적의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만족도와 적합도가 매우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GGM이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면, 2023년 올해는 GGM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GGM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전기차 생산 여부가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GGM은 전기차 양산 체제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을 올해 첫 목표로 삼았다. 올해 안에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보안 시설을 설치하고 시 운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2024년 시험생산을 거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GGM은 전기차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략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11월 약 2개월 간 공장의 가동을 모두 멈추고 설비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공장 가동이 멈추는 기간을 고려, GGM은 생산 목표 대수를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4만5000대로 10% 상당 낮게 잡았다.

아울러 전기차 양산과 함께 2교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차 생산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620여 명의 고용 인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인재에게도 한번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GM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반도체 부품 수급난에도 우리 GGM 모든 임직원의 노력으로 생산 목표인 5만대를 달성하고 안전, 환경, 품질 등 3개 분야의 ISO 인증을 획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해였다"며 "새해 안전하고 상생하는 일터를 만들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산 기반 시설을 완벽히 갖춰 세계 최고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산·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이 '최대 250만원'

1인당 680만원...20만원 인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 등 업체별 보조금 50% 차등 산정 현대차·기아 보조금 최대치 혜택

내년에는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정부 보조금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2일 환경부와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 업체와 설명회에서 내년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개편안에는 전기승용차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총합 상한선을 지금보다 100만원 인하한 500만원으로 하고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50% 차등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업체 전기승용차는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모두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외국 제조사들은 국내에 직영서비스센터가 없다.

개편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외부로 전력을 빼내 사용할 수 있는 '비하리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보조금 15만원을 더 주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에 보조금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현대차는 이 조건을 충족했고 외국 전기차 제조사 중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 전기차에만 주어지는 이행보조금 상한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저공해차보급목표제 업체 전기차면 주어지는 이행보조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업체가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조금 상한은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등 10개다.

개편안이 알려진 대로 시행되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보조금이 '최소 250만원'을 더 차이 날 수밖에 없다. 현재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전기차만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사후관리와 기반시설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북미에서 최종조립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빚대 '한국판 IRA'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기차는 국산차 점유율이 내연기관차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작년 기준 전체 신규등록 차량 가운데 국산차 비율은 82.0%인데 전기차만 보면 국산차 비율이 74.1%에 그친다.

특히 전기승용차 국산차 점유율은 2016년 90.9%에서 작년 64.5%까지 하락했다.

전기버스 국산차 점유율은 같은 기간 100%에서 61.5%로 떨어졌는데 중국산의 약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두고 외국 제조사들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대다수 회원사가 전기승용차 애프터세일즈와 관련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회원사와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 체계) 개편과 실행 과정에서 업체 내 일부 업체에 의도치 않은 편향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선택의 기회를 누려야 할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보조금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라며 "내달 중순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 연간 최다 판매 지난해 1~11월 2만9266대...3만대 돌파 확실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이 지난 2022년 연간 판매량 최다 기록을 크게 경신하며 호실적을 올렸다. 한해 판매량 3만대 돌파도 확실시된다.

2일 현대차에 따르면 N 브랜드의 작년 1~11월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2만9266대(국내 3289대, 해외 2만5977대)였다.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12월 판매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종전 최다 판매 기록인 2019년의 1만8490대를 1만대 이상 넘어섰다.

N 브랜드는 현대차가 모터스포츠 참가를 통해 쌓은 기술력을 반영한 고성능차다. 2017년 i30 N으로 출발해 이후 벨로스터, i20, 아반떼, 코나로 계보를 잇는 중이다. 세계 각국 유명 완성차 업체들도 BMW의 'M', 메르세데스-벤츠의 '메르세데스-AMG'와 같은 고성능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N 브랜드 판매량은 2017년 2027대에서 2018년 1만2123대, 2019년 1만8490대로 계속 증가했다. 2020년 8675대로 급감했으나 아반떼 N과 코나 N이 출시된 2021년 1만7862대로 회복했다.

차종별로는 그간 i30 N이 1위를 이어오다 올해 아반떼 N이 9751대로 처음 최다 판매 차종으로 올라섰다. 2위는 코나 N(6211대)이었다. 아반떼 N은 국내 2839대·해외의 6912대, 코나 N은 국내 267대·해외의 5944대 판매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에서 한 커플이 아반떼 N(현지명 엘란트라 N)을 타고 여행 도중 91m 협곡 아래로 굴러떨어져 차는 완전히 파손됐으나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올해 아이오닉5 N을 출시해 내연기관에 이어 전기차 부문에서도 고성능차 시장에 합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누구나 신청 가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해달라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래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사업자만 할 수 있었는데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충전기 설치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건물소유자나 입주자대표가 아니면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 동의 서나 관련 회의록도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폭 축소...광주 휘발유값 '경충'

l 당 1536.35원...이틀새 26원 ↑

새해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 인상 폭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보통 휘발유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l 당 광주 1536.35원·전남 1557.93원으로, 지난 연말(12월31일)보다 각각 26.23원(1.7%), 9.31원(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 당 1530.70원에서 1550.17원으로, 19.47원(1.3%) 인상했다.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에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하락해왔다.

광주 휘발유값은 지난해 9월5일(1716.64원) 이후 지난달 28일(1505.96원)까지 내리다가 반등하며 5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남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9월2일(1755.46원)을 끝으로 오름세를 마치고 지난달 30일(1548.14원)까지 내려왔다.

지난 1일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가격이 l 당 1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 세율(l 당 820원)과 비교하면 l 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